

연구논문

한국인의 문화성향에 관한 메타분석: 집단주의와 개인주의를 중심으로

박혜경* · 김상아**

본 논문에서는 한국인의 문화성향을 집단주의-개인주의 차원에서 살펴보았던 경험적 연구들을 메타분석 하였다. 이 메타분석을 통해 한국인의 문화성향이 개인주의적이라기보다 집단주의적이라고 할 수 있는지, 만약 그렇다면 개인주의 성향에 비하여 집단주의 성향이 어느 정도 강한지 알아보았다. 더 나아가, 한국인의 집단주의 및 개인주의 수준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연구참가자들의 성별 및 연령에 따라, 그리고 측정의 신뢰도와 척도의 내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지 살펴보았다. 분석에는 총 41개의 국내 연구들(N=12,925)이 포함되었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첫째, 개인주의 성향보다 집단주의 성향이 상대적으로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그 차이는 작은 크기에서 중간 크기 범위에 속하였다. 둘째, 연구참가자들의 연령대가 높을수록 집단주의 성향이 개인주의 성향보다 더 강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척도의 신뢰도가 높을수록 집단주의 성향과 개인주의 성향 간의 차이는 작아졌으며, 측정에 사용된 척도에 따라 문화성향 간의 차이가 달라졌다. 넷째, 연구참가자들의 성별과 자료 수집 시점은 문화성향의 차이와 관련이 없었다. 마지막으로, 출판 편의의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가 가지는 의의 및 제한점을 논하고, 한국인의 문화성향에 대한 후속 경험적 연구와 메타분석 연구의 방향에 대해 제언하였다.

주제어: 문화성향, 집단주의, 개인주의, 한국인, 메타분석

* 성신여자대학교 심리학과 부교수. hpark@sungshin.ac.kr. 주저자. 교신저자.

** 서강대학교 심리학과 박사과정. sangaahh@daum.net. 공동저자.

DOI: <https://doi.org/10.33071/ssricb.42.3.201812.5>

I. 서론

한국인의 문화성향은 집단주의적인가? 한국인의 집단성을 둘러싼 심리학적 고찰은 토착심리학 관점과 비교문화심리학 관점을 비롯한 여러 각도에서 이루어져 왔다. 본 연구의 목적은 1997년부터 2017년 사이에 발표되었던 한국인의 문화성향에 대한 국내 연구들을 메타분석 하여, ‘한국인들은 대체로 개인주의적이라기보다 집단주의적이다.’라는 생각이 어느 정도 경험적으로 지지되었는지 살펴보는 데 있다.

1. 한국인의 집단성에 대한 심리학적 고찰

한국인의 집단성에 대한 심리학적 고찰은 한국인의 집단성이 지닌 고유한 특징과 그 연원을 파악하거나, 한국인을 개인주의 문화 맥락에 속한다고 여겨지는 사람들과 자기개념, 사고양식 등의 측면에서 대조하는 방식으로 전개되어 왔다. 한국적 집단성의 고유한 특징과 그 연원을 파악하는 연구들의 예로, 최상진(2011)은 한국인의 집단성을 ‘우리성’이라 명명하고, 서구의 집단주의가 집단구성원의 고유성을 유지한 상태에서 형성되는 개인성의 합을 의미하는 것과는 달리, 한국의 우리성은 개인이 자신의 고유성을 집단에 맞추어 변화시키고 전체에 융화됨으로써 형성되는, 즉 개인성의 단순한 합을 넘어서는 집단성을 의미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사회에 집단주의 문화가 생성되는 데에는 고유한 유학사상의 전통이 크게 기여하였다는 주장도 제기된 바 있다(조금호, 2007; 2012).

다음으로, 비교문화심리학 관점에서는 한국인을 비롯한 동아시아인들이 대체로 집단주의 성향과 상호의존적 자기관을 가지고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미국인을 포함한 북미인들은 대체로 개인주의 성향과 독립적 자기관을 가지고 있다고 여긴다(Markus and Kitayama, 1991). 1980년대 이후 급증한 문화 간 비교 연구 결과들은 이러한 관점과 일관되어 보인다. 그 한 가지 예로 자기 관련 동기의 비교문화적 차이를 들 수 있다. 집단주의 문화에서는 개인이 맥락과 필수불가결하게 연결되어 존재하므로 상황과 관계에 따라 행위를 변화시킬 것이 강조된다(정태연, 2001; Suh, 2002). 이로 인해 자신의 단점을 발견하고 고쳐나가려는 자기향상의 동기가 강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었던 반면, 개인주의 문화에서는 개인이 자신의 내적 특성에 의하여 규정되기 때문에 자신의 장점과 고유성에 주의를 기울이고 이를 증진하려는 자기고양의 동기가 강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었다(조금호, 2000; Heine, Lehman, Markus, and

Kitayama, 1999). 그리고 이러한 예상은 자기고양 귀인의 문화차를 통해 경험적으로 지지되었다. 자기고양 귀인은 자신의 성공을 능력이나 노력과 같은 내부 요인으로 귀인하고 실패는 운이나 과제의 난이도와 같은 외부 요인으로 귀인하는 경향으로, 이를 통해 개인은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유지할 수 있다(Miller and Ross, 1975). 이처럼 자신의 성공을 내부 귀인하고 실패를 외부 귀인하는 경향이 북미인들을 대상으로 수행되었던 연구들에서는 안정적으로 관찰되었다(Mezulis, Abramson, Hyde and Hankin, 2004). 그러나 일본인들을 대상으로 수행되었던 연구들에서는 오히려 성공의 원인을 운이나 과제의 난이도에 돌리고 실패는 능력이나 노력 부족에서 비롯되었다고 파악하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이러한 경향은 익명성이 보장된 경우에도 관찰되었다(이누미야 요시유키·김윤주, 2006). 이처럼 자기향상 동기와 자기고양 동기를 둘러싼 문화차는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문화 맥락에 속한 사람들이 대체로 집단주의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지지한다.

한편, 개인이 맥락 속에서 정의된다고 간주하는 집단주의 문화와 개인이 맥락과 독립적으로 존재한다고 간주하는 개인주의 문화의 차이는 종합적 사고양식과 분석적 사고양식의 구분에도 반영되어 있다(Nisbett, 2003; Nisbett, Peng, Choi and Norenzayan, 2001). 종합적 사고양식은 “세상의 모든 요소들은 서로 어떻게든 연결되어 있어서 어떤 사건이나 대상을 전체로부터 분리하여 이해하는 것은 어렵다.”는 믿음을 전제로 하는 반면, 분석적 사고양식은 “세상은 서로 분리된 독립적인 원소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믿음에 기초한다(설선헌·최인철, 2009: 20). 주의 할당, 인과 귀인, 범주와 형식 논리의 사용, 변증법적 추론 등 사고양식의 여러 측면에서 동서 문화 간 차이를 조명한 결과, 동아시아 집단주의 문화 맥락에 속한 사람들은 물체와 배경 사이의 관계에 주의를 할당하고 타인의 행동을 상황적으로 설명하는 등 종합적으로 사고하고, 북미를 비롯한 개인주의 문화 맥락에 속한 사람들은 중심 물체에 주의를 할당하고 타인의 행동을 기질적으로 설명하는 등 분석적으로 사고한다는 결과가 반복 관찰되었다(Masuda and Nisbett, 2001; Morris and Peng, 1994; Norenzayan, Smith, Kim and Nisbett, 2002; Peng and Nisbett, 1999). 종합하건대, 자기 관련 동기와 사고양식에 대한 비교문화심리학 연구들 모두 한국인을 비롯한 동아시아인들이 집단주의 성향과 상호의존적 자기관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했을 때 나타나리라고 예상했던 결과를 보여주었다.

2. 한국인의 집단성에 대한 재고의 필요성

그렇다면 한국인이 집단주의적이라고 결론내릴 수 있는가? 전술한 선행 연구들도 불구하고, 몇 가지 중요한 경험적 불일치는 한국인의 집단성에 대해 면밀히 재검토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첫째, 1980년에서 1999년 사이에 영문으로 출판된 집단주의와 개인주의 관련 비교문화 연구들을 메타분석한 결과에 따르면(Oyserman, Coon and Kimmelmeier, 2002), 일반의 통념과는 매우 다르게 집단주의 수준에서 한국인은 유럽계 미국인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한국인의 개인주의 성향은 유럽계 미국인의 개인주의 성향에 비하여 약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 차이는 예상처럼 현저하지 않았다. 즉, 위의 메타분석을 통하여 한국인이, 여러 문화 집단들 가운데 가장 덜 집단주의적인 동시에 가장 개인주의적이라고 여겨지는 유럽계 미국인과 집단주의 수준에서 차이를 보이지 않으며, 개인주의 수준에서 보이는 두 집단의 차이 역시 예상보다 작음을 알 수 있었다. 비록 Oyserman과 동료들의 메타분석에 학부생들을 대상으로 수행되었던 연구들이 주로 포함되었기 때문에 문화차가 축소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나(Henrich, Heine and Norenzayan, 2010), 이들의 메타분석은 ‘한국인이 집단주의적이다.’라는 가정의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둘째, 국내에서 수행되었던 일부 연구들에서도 한국인의 문화성향이 집단주의적이거나 상호의존적이라고 가정할 경우 해석하기 어려운 결과가 관찰되었다. 일례로, 개인 과제에서의 성공과 실패를 공개적인 상황과 익명성이 보장되는 상황에서 각각 어떻게 귀인하는지 살펴보았던 연구에서(김혜숙, 1995), 기존의 비교문화 연구들이 보여준 바와는 달리 자신의 실패에 비하여 성공을 더 내적으로 설명하는 자기고양 귀인이 나타났다. 더 나아가, 이러한 자기고양 귀인은 익명성이 보장되는 상황에 비하여 공개적인 상황에서 더욱 두드러졌다. 자기고양 편향을 다룬 다른 국내 연구에서도 한국인의 문화성향이 집단주의적이라는 가정에 반하는 결과가 관찰되었다(한성열, 2003). 이 연구에서는 자기고양 편향을 측정하는 도구를 직접 개발한 후, 이를 사용하여 대학생들과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자기고양 편향과 심리적 적응의 관계를 검증하였다. 선행 비교문화 연구들에 따르면, 집단주의 문화 맥락에 속한 사람들에게서는 개인주의 문화 맥락에 속한 사람들과는 다르게 자기고양 편향이 관찰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고양 편향의 부재가 우울 등의 심리적 부적응으로 이어지지 않았다(Heine and Lehman, 1999). 그러나 기존 비교문화 연구들의 결과와는 반대로, 한성열(2003)의 연구에서는 대학생 표본과 직장인 표본 모두에서 자기고양 편향을 크게

보일수록 자기존중감과 삶에 대한 만족은 증가하고, 고독감과 대인불안은 감소하는 등 자기고양 편향과 심리적 적응 간에 정적 상관관이 관찰되었다. 그런데 이처럼 한국인이 집단주의적이라는 가정에 기초해서는 설명되지 않는 연구 결과들이 얼마나 일반적인 경향을 반영하는지 알기 위해서는 개별 연구들의 효과크기를 살펴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축적된 경험적 자료를 체계적으로 요약, 정리하였을 때 비로소 위와 같은 연구 결과들이 표본의 특성이나 고유한 측정 방법에 기인한 예외적인 결과들인지, 아니면 한국인의 집단성에 대한 가정 자체를 재고해야 하는지 알 수 있다. 이는 곧 한국인의 문화성향을 다룬 그간의 연구들을 메타분석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위와 같은 이론적 가정과 경험적 관찰 사이의 불일치와 더불어, 한국인과 한국문화가 점차 개인주의화 되어가고 있다는 학문적 논의와 일반의 인식 또한 ‘한국인은 집단주의적이다.’라는 가정이 여전히 타당한지 검증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학문적 논의의 장에서는 일찍부터 근대화와 외래문화의 유입으로 인하여 한국인이 개인주의화 되어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나은영·민경환, 1998; 나은영·차재호, 1999). 그리고 사회적 논의의 장에서도 최근 1인 가구의 증가, 혼자 하는 식사, 혼자 하는 각종 여가 활동의 확산을 예로 들며 한국인과 한국문화가 개인주의화 되어가고 있다고 지적하는 것을 흔히 접할 수 있다(경향비즈, 2016. 9. 20). 이와 같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문화가 점차 개인주의화 되어가고 있다는 생각은 여러 문화의 변화를 설명하는데 적용되어 왔다. 일례로, Putnam(2000)은 다양한 사회지표들을 근거로 1960년대 이후 미국인의 사회적 삶이 개인주의적인 방향으로 크게 변화했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1960년대 이전에 비하여 최근 젊은 세대의 미국인들이 시민운동에 덜 참여하고, 사교활동을 덜 하는 대신 혼자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 타인을 덜 신뢰할 뿐만 아니라 법규를 덜 준수하는 것 등이 개인주의화의 징표라는 것이다. 또한, 과거에 비하여 미국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덜 흔한 이름을 지어준다는 연구 결과 역시 미국인들이 점점 더 독특성을 희구하며 개인주의화 되어왔음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해석되었다(Twenge, Abebe and Campbell, 2010). 이처럼 문화가 점진적으로 개인주의화 되어가고 있다는 생각은 일본을 비롯한 여러 다른 산업화된 사회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이는 ‘경제 성장의 결과로 개인주의가 증가한다.’는 근대화 이론(modernization theory; Inkeles, 1975)과 맥을 같이 한다. 이 근대화 이론은 미국과 일본에서 개인주의 및 집단주의 수준의 변화를 종단적으로 비교, 분석하였던 연구에서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Hamamura, 2012).¹⁾ 이처럼 산업화와 경제 성장과 같이 한국문화를 개인주의화의 방향으로 이끌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요인들이 존재하는 반면, 다수의 무지

(pluralistic ignorance; Prentice and Miller, 1993) 및 문화 지체(cultural lag; Cohen, 2001)와 같이 기존 한국문화의 유지를 가능하게 했을 요인들도 존재한다. 실제로 한국인의 가치관 변화를 30년 간 추적한 연구에서, 개인주의는 가치관 변화가 가장 크게 일어났던 차원 중 하나인 것으로 밝혀졌으나, 여전히 한국인 남녀노소 과반수가 충효사상,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상하구별 및 겸손을 중요시하는 등 한국문화의 변화와 유지의 문제가 단순히 ‘개인주의화’로만 정리될 수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나은영·차유리, 2010). 그러므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한국인이 개인주의화 되어왔는지는 다양한 자료에 기반을 두고 검증해야 하는 문제이다.

요컨대, 집단주의와 개인주의 차원에서 비교문화적인 차이가 예상보다 작게 나타난 것, 한국인의 문화성향이 집단주의적이라고 가정할 때 설명하기 어려운 국내 연구 결과들, 그리고 산업화와 경제 성장으로 인한 문화의 변화 가능성 모두 한국인이 집단주의적이라는 가정을 실증적으로 검토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1997년부터 2017년 사이 한국심리학회 발간 학술지에 게재된 한국인의 문화성향 관련 경험 연구들을 메타분석 하였다. 이 메타분석을 통해 한국인의 문화성향이 개인주의적이라기보다 집단주의적이라고 할 수 있는지, 만약 그렇다면 집단주의 성향이 개인주의 성향에 비하여 어느 정도 강한지 알아보았다. 더 나아가, 문화성향 관련 선행 메타분석 연구들에 투입되었던 조절변수들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한국인의 집단주의 및 개인주의 수준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Hamamura, 2012; Vargas and Kimmelmeier, 2013), 연구참가자들의 성별(Holt and DeVore, 2005; Steel and Taras, 2010) 및 연령에 따라(Steel and Taras, 2010), 그리고 측정의 신뢰도와 척도의 내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지(Oyserman et al., 2002) 살펴보았다.

한국인의 문화성향이 개인주의적이라기보다 집단주의적인지 살펴보는 메타분석은 집단주의 성향과 개인주의 성향 간의 상대적인 비교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본 메타분석은 집단주의와 개인주의의 차이점수에 기초하여 이루어졌다. 그런데 차이점수를 바탕으로 하는 메타분석은 집단주의와 개인주의가 두 개의 직교하는 차원들이 아닌, 단일 차원의 양극단임을 전제로 한다. 그러므로 아래에서는 집단주의와 개인주의의

1) 그러나 일본, 대만, 홍콩,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호주, 뉴질랜드, 파푸아 뉴기니와 같은 여덟 개 국가를 대상으로 20년에 걸쳐 문화적 가치와 경제 발전의 관계를 살펴보았던 연구에서는 근대화 이론의 골자인 경제 결정론(economic determinism)과 일치하는 결과뿐만 아니라 문화 결정론(cultural determinism; Harrison and Huntington, 2001; McClelland, 1961; Weber, 1905/1930), 즉 문화적 가치가 경제 발전을 촉진한다는 생각과 일관된 결과도 관찰되었다(Allen et al., 2007). 또한, 근대화 이론이 현존하는 비교문화 자료와 항상 일관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주의 깊게 검증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 바 있다(Kashima et al., 2009).

개념적 정의와 차원성(dimensionality)의 문제에 대한 그간의 논의를 개관하고, 차이 점수에 기초한 메타분석을 정당화한다.

3. 집단주의 및 개인주의의 개념과 차원성의 문제

Hofstede(1980)에 따르면, 집단주의는 “사회적인 틀로서, 이에 속한 사람들은 내집단과 외집단을 구분하고, 내집단이 자신을 돌보아줄 것으로 기대하며, 그 대가로 내집단에 절대적으로 충성해야 한다고 느끼는” 문화이다. 집단주의자들(collectivists)은 스스로가 집단의 일부라고 여기고, 자신이 속한 내집단의 목표와 개인적 목표가 중복되며, 만약 내집단의 목표와 개인의 목표 간에 차이가 있다면 내집단의 목표를 개인의 목표보다 우선시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 그리고 집단주의자들의 사회적 행동은 규범, 지각된 의무와 책임을 통해 가장 잘 예측할 수 있다. 또한, 집단주의자들에게는 인간관계가 가장 중요한 것이기에, 설령 관계를 유지하는 비용이 이득을 초과한다고 할지라도 관계 내에 머무르는 경향이 있다(Triandis, 1995). 더불어, 집단주의는 중요한 집단 소속이 부여되고 고정된 것이며 피할 수 없는 인생의 현실이므로 사람들이 그에 맞추어야 함을 의미하며, 내집단과 외집단의 경계는 안정적이고 비교적 침투가 어려우며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내집단 내의 교환은 평등이나 관용의 원칙 위에서 이루어진다(Oyserman and Lee, 2007).

한편, Hofstede(1980)는 문화의 차원으로서 개인주의를 “느슨하게 짜인 사회적 틀로서, 그 안에서 사람들은 자기 자신과 직계 가족만을 돌볼 것으로 기대되는” 문화라고 정의하였다. 개인주의자들(individualists)은 집단으로부터 자율적인 자기개념에 초점을 맞춘다. 개인주의자들의 개인적 목표는 내집단의 목표와 중복되지 않을 수 있고, 만약 개인적 목표와 내집단의 목표 간에 차이가 있다면 개인적 목표를 내집단의 목표보다 우선시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 그리고 개인주의자들의 사회적 행동은 그들의 태도 및 내적 과정과 개인적으로 맺은 계약을 통해 가장 잘 예측할 수 있다. 또한, 개인주의자들은 인간관계 유지를 위한 비용이 이득을 초과할 경우 종종 관계를 떠난다(Triandis, 1995). 즉, 개인주의에서는 인간관계가 영구적이고 고정적이라기보다 선택에 의해 맺어지고 자발적인 경향을 띄며, 비용과 이득이 균형을 이루지 않는다면 관계를 개선하거나 혹은 떠날 수 있다고 여겨진다(Oyserman and Lee, 2007).

문화의 차원 가운데 하나로서 개인주의를 제안할 때 Hofstede(1980)는 개인주의와 집단주의를 연속선 상의 양극단으로 간주하였다. 즉, 낮은 수준의 개인주의는 높은

수준의 집단주의를 의미한다고 여긴 것이다. 이러한 생각은 일부 경험적인 연구들에도 반영되었다(Chan, 1994; Hui, 1988; Kitayama, Markus, Matsumoto and Norasakkunkit, 1997; Yamaguchi, 1994). 그러나 상당수의 후속 연구들에서는 집단주의와 개인주의가 상호배타성을 결여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직교하는 두 개의 차원, 즉 집단주의 성향과 개인주의 성향 모두를 강하게 가지고 있거나 어느 성향도 강하게 보이지 않는 것도 가능하다고 간주하는 등(Bontempo, 1993; Oyserman, 1993; Rhee, Uleman and Lee, 1996; Singelis, 1994; Sinha and Tripathi, 1994; Triandis, 1995), 집단주의와 개인주의가 단일 차원의 양극단인가 두 개의 독립된 구성개념인가의 문제에 관하여 학문적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다. 그런데 집단주의와 개인주의의 차원성 문제를 다중 기법으로 검증(multi-method test)한 최근 연구에 따르면(Taras, Sarala, Muchinsky, Kemmelmeier, Singelis, Avsec, et al., 2014), 이 문제에 대한 답은 아래에 기술된 바와 같이 표본의 특성 및 자료 수집이 이루어졌던 문화 지역 등에 따라 달라진다.

본 연구에서는 집단주의와 개인주의를 단일 차원의 양극단으로 간주하였다. 그 이유는 첫째, 선행 메타분석에 따르면(Taras et al., 2014), 북미인들에 비하여 북미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서, 그리고 서양인들에 비하여 동양인들에게서 집단주의와 개인주의가 연속선 상의 양극단으로 지각되는 경향이 두드러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과는 문화성향을 측정하는 데 구체적으로 어떤 유형의 도구가 사용되었는가와 무관하게 관찰되었다. 즉, 동양 문화 맥락에 속한 사람들은 집단주의와 개인주의를 양립할 수 있는 두 개의 독립적인 성향으로 바라보기보다, 상호배타적인 성향, 즉 둘 가운데 한 가지 성향이 강하다면 다른 성향은 약할 것으로 간주하는 경향을 보였다.

둘째, 위와 마찬가지로 선행 메타분석에 따르면, 집단주의와 개인주의를 두 개의 독립된 구성개념으로 간주하였던 연구들에서 사용되었던 개념적 정의와 조작적 정의 및 연구 가설 모두 실질적으로는 집단주의와 개인주의를 단일 차원의 양극단으로 간주하였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Taras와 동료들(2014)의 메타분석에 포함되었던 논문들 중 82.7%가 집단주의와 개인주의를 개념적으로 정의할 때 두 가지가 역의 관계임을 강조하기 위하여 “그에 반하여,” “역으로,” 혹은 “~와는 대조적으로”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집단주의와 개인주의의 대표적인 측정도구 여섯 개를 살펴본 결과, 이러한 척도들에서 사용된 집단주의와 개인주의의 조작적 정의가 대부분 집단주의와 개인주의의 속성을 대조되는 쌍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드러났다(예: 집단의 목표와 욕구 대 개인의 목표와 욕구). 마지막으로, 집단주의와 개인주의를 독

립된 구성개념으로 간주하였던 연구들에 제시된 126개의 연구 가설들 가운데 87.3%는 집단주의에 대하여 예상되는 효과와 반대 방향의 효과를 개인주의에 대하여 예상하는 등 높은 집단주의는 곧 낮은 개인주의를, 높은 개인주의는 곧 낮은 집단주의를 의미하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Taras와 동료들의 연구에 포함되었던 영문 출판 자료들에서만 아니라, 본 메타분석에 포함된 34편의 국내 학술지 논문들 가운데 24편에서도 찾아볼 수 있었다(70.6%).²⁾ 이러한 결과는 본 메타분석에서 집단주의와 개인주의를 단일 차원의 양극단으로 간주하는 것이 적절함을 지지한다.

마지막으로, 일상생활에서 사람들이 보이는 행동 양식 역시 집단주의와 개인주의를 한 차원의 양극단으로 여기는 관점과 보다 잘 부합한다. 만약 집단주의와 개인주의가 두 개의 독립된 성향이라면, 매우 집단주의적인 동시에 매우 개인주의적인 행동 양식을 흔히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실생활에서는 이와 같이 집단주의와 개인주의가 둘 다 강하게 반영된 행동 양식을 찾기 어려운 대신, 상대적으로 집단주의적인 행동(예컨대, 갑작스럽게 결정된 회식 때문에 개인적인 선약을 어김)이나 상대적으로 개인주의적인 행동(예컨대, 개인적인 선약을 지키기 위하여 회식에 불참)은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즉, 집단주의에 가까운 행동과 개인주의에 가까운 행동 가운데 택일을 하는 것이다. 설령 ‘개인이 집단주의 성향과 개인주의 성향을 모두 보유하고 있고 상황의 요구에 따라 어느 성향을 발현시키는가가 달라질 뿐’이라는 관점을 받아들인다 할지라도(Oyserman and Lee, 2007), 집단주의 성향과 개인주의 성향의 문화 내 개인차에 대한 많은 선행 연구들이 시사하듯이 동일한 상황 하에서도 집단주의적인 행동 양식을 택하는 사람과 개인주의적인 양식을 택하는 사람을 구분하는 것은 여전히 가능하다(김경민·박동건, 2011; 김혜진·김비야·이재식, 2012; 박서영·박성연, 2012). 이는 집단주의와 개인주의를 두 개의 양립 가능한 차원으로 간주하는 것보다 단일 차원의 양극단으로 간주하는 것이 적절함을 지지한다.

요컨대, 본 연구에서는 위에 기술한 바와 같은 세 가지 근거, 즉 동양인들은 집단주의와 개인주의를 단일 차원의 양극단으로 지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선행 메타분석 결과, 다수의 기존 연구들에서 집단주의와 개인주의를 개념적으로 정의하고 가설을

2) 집단주의와 개인주의를 단일 차원의 양극단으로 간주하였던 24편의 논문들 가운데, 문화성향과 관련된 가설이나 예측을 제시한 논문은 16편이었고(47.1%), 가설은 밝히지 않았으나 서론에서 문화성향이 단일 차원임을 제시한 논문은 여덟 편이었다(23.5%). 반면, 문화성향을 다차원적 구성개념으로 간주한 논문은 네 편에 불과하였다. 그리고 문화성향과 관련된 구체적인 가설이나 논의를 제시하지 않아 분류하기 어려운 논문은 5편이었다. 마지막으로, 나머지 한 편에는 한국의 집단주의 문화가 성소수자들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기술되어 있을 뿐, 집단주의 문화와 개인주의 문화를 비교하는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았다.

설정하며 측정함에 있어 집단주의와 개인주의를 대비하였다는 점, 그리고 집단주의와 개인주의를 단일 차원으로 간주하는 관점이 실생활에서 사람들이 취하는 행동 양식을 설명하는 데 보다 적합하다는 점에 근거하여 집단주의와 개인주의를 연속선 상의 양극단으로 간주하였다.

4. 연구 개관

본 연구에서는 그간 한국인의 문화성향을 집단주의-개인주의 차원에서 검증하였던 연구들을 메타분석 하여, ‘한국인은 개인주의적이라기보다 집단주의적이다.’라는 가정이 경험적으로 어느 정도 지지되었는지 알아보았다. 구체적으로, 1997년부터 2017년 사이에 한국심리학회 발간 학술지들에 발표되었던 경험 연구들 가운데 평정 척도를 사용하여 개인 수준에서 집단주의와 개인주의를 측정 및 보고하였던 연구들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³⁾ 본 연구에서는 집단주의와 개인주의를 연속선 상의 양극단으로 간주하였으므로, 효과크기 분석은 집단주의와 개인주의의 차이점수에 기초하여 이루어졌다. 조절변수로는 논문 출판 연도, 연구참가자들의 성별 및 연령, 그리고 측정의 신뢰도와 척도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II. 방법

1. 자료 수집 및 선정

1) 문헌 검색

국내의 학술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Research Information Sharing Service, RISS), 한국학술정보(Korean studies Information Service System, KISS), DBpia, 교보문고 스콜라 및 한국사회과학자료원(Korea Social Science Data Archive, KOSSDA)의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1997년부터 2017년 8월 15일까지

3) 1996년 이전에도 개인의 문화성향을 살펴보았던 연구들이 발표되었다. 그러나 그 연구들은 문화성향에 대한 국내 연구들에서 주로 사용되었던 두 가지 척도 - 즉, Singelis(1994)의 Self-Construal Scale과 Singelis, Triandis, Bhawuk과 Gelfand(1995)의 Individualism-Collectivism Scale- 가 아닌 다른 척도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본 메타분석에서 제외되었다.

출판된 경험 논문들을 검색하였다. 문화성향으로서의 집단주의와 개인주의가 관련 문헌에서 여러 다른 용어로 표현되는 것을 고려하여, 검색 키워드는 [집단주의(집합주의), 개인주의], [상호의존성(상호의존적), 독립성(독립적)], [문화성향] 및 [자기해석(자아해석)]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검색된 논문의 참고문헌들을 확인하는 방법도 병행하였다.

2) 자료 포함 및 제외 기준

첫째, 메타분석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동료에 의한 심사가 진행된 후 한국심리학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들에 게재된 논문들만을 포함시켰다. 둘째, 본 연구의 목적은 척도를 사용하여 한국인의 문화성향을 측정한 연구들을 메타분석 하는 것이었으므로, Singelis(1994)의 Self-Construal Scale, Singelis 등(1995)의 Individualism-Collectivism Scale 및 Hui(1988)의 Individualism-Collectivism Scale을 사용하여 개인의 문화성향(집단주의와 개인주의, 또는 상호의존성과 독립성)을 측정한 연구들을 수집하였다. 그러므로 문화성향을 실험적으로 접화한 연구들과 한 가지 문화성향만을 측정한 연구들은 자료 수집에서 제외되었다. 자료 수집 결과, 문화성향을 측정하는 데 가장 널리 사용되는 Singelis(1994)의 척도 및 Singelis 등(1995)의 척도를 사용한 연구들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97.82%), Hui(1988)의 척도를 제외한 위의 두 가지 척도를 사용하여 문화성향을 측정한 연구들만을 분석에 포함시켰다. 셋째, 문화성향의 효과크기를 계산하는 데 필요한 통계치들(평균, 혹은 상관계수)이 제시되지 않은 연구들을 제외시켰다. 마지막으로, 동일한 논문에 포함되었더라도 하위 연구 별로 표본이 독립적이었거나, 단일 연구 내에서도 서로 다른 연령층의 표본을 사용한 경우(예: 한 연구에서 성인 표본과 청소년 표본을 사용한 경우), 각각의 표본을 개별 연구로 분석에 포함시켰다. 최종적으로 총 41개의 연구(34편의 논문, $N=12,925$)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이 가운데 Singelis 등(1995)의 척도를 사용한 연구가 33개, Singelis(1994)의 척도를 사용한 연구가 8개였다.

2. 자료의 코딩 및 처리

1) 자료의 코딩

효과크기를 계산하기 위하여 다음 정보들을 수집하고 코딩하였다: 1) 각 문화성향(집단주의와 개인주의, 또는 상호의존성과 독립성)의 평균, 표준편차, 상관계수 및 표

본 크기, 2) 조절 변수로 고려한 연구참가자들의 성별, 연령, 논문 출판 연도 및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alpha). 그 외에 논문 제목, 저자, 학술지명, 척도 출처 등의 정보도 코딩하였다.

코딩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제2저자와 훈련을 받은 심리학과 4학년 학부생 1명이 독립적으로 연구 정보를 코딩한 후 일치도를 검토하는 절차를 거쳤다. 제2저자가 모든 연구를 코딩하였고, 학부생은 무작위로 선정된 21개의 연구(51%)를 코딩하였다. 검토 결과, 코딩된 모든 정보가 두 코더 간 일치하였다.

2) 자료의 처리

첫째, Singelis 등(1995)의 Individualism-Collectivism Scale을 사용하여 문화성향을 측정한 연구의 경우, 수직-수평 차원, 즉 대인관계에서 위계질서를 강조하는가 평등성을 강조하는가의 차원(한규석, 신수진, 1999)은 고려하지 않고 집단주의-개인주의 차원만을 고려하였다. 따라서 연구에 보고된 집단주의 평균 점수('수직-집단주의' 및 '수평-집단주의'의 평균)와 개인주의 평균 점수('수직-개인주의' 및 '수평-개인주의'의 평균)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수직-수평 차원과 집단주의-개인주의 차원을 동시에 고려하여 네 문화성향 각각의 점수를 보고하였으나 집단주의 평균 점수와 개인주의 평균 점수는 보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구자들이 직접 평균을 계산하여 입력하였다. 둘째, 각 문화성향의 평균 점수는 보고하였으나 집단주의와 개인주의 간 상관계수를 보고하지 않은 연구의 경우에는 나머지 연구들에서 보고된 상관계수들($r_s = -.02 \sim .48$)의 평균값인 .22로 일괄 코딩하였다.

3. 분석

모든 분석에는 Comprehensive Meta-Analysis(CMA) Version 3.0 프로그램(Borenstein, Hedges, Higgins and Rothstein, 2014)을 사용하였다.

1) 평균 효과크기 산출 및 조절효과 검증

분석을 위한 효과크기로는 집단주의와 개인주의, 또는 상호의존성과 독립성의 평균 차이값 및 상관계수를 사용하였다. 평균 차이값과 상관계수는 표준화된 평균차이(Cohen's d)로 변환이 가능하므로(Borenstein, Hedges, Higgins and Rothstein, 2009), 해석의 통일성을 위하여 두 종류의 효과크기를 모두 d 값으로 변환하였다. 그

려나 d 값은 표본 크기가 작을 때 과대추정 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d 값을 교정 가중치로 교정한 Hedges' g 로 변환한 후 이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효과크기는 Cohen(1988)의 기준에 따라 0.20이면 작은 효과크기, 0.50이면 중간 효과크기, 0.80이면 큰 효과크기로 해석한다.

본 연구에서는, 메타분석에서 평균 효과크기를 산출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두 모형(고정효과모형과 무선효과모형) 중 무선효과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두 모형은 연구들 간의 이질성을 가정하는지에 따라 구분되는데, 고정효과모형은 이질성을 가정하지 않는 반면 무선효과모형은 이질성을 가정한다(Borenstein et al., 2009). 다시 말해서, 고정효과모형은 모든 연구의 효과크기가 동일하다고 가정하는 반면에 무선효과모형은 연구들 간의 분산을 인정하고 연구마다 효과크기가 다르다고 가정하며, 이때 산출되는 평균 효과크기는 다양한 효과크기들의 평균을 의미한다. 같은 주제를 다룬 연구라 할지라도 연구마다 측정변수, 연구 내용 및 방법 등에서 각기 다른 고유의 속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대부분의 메타분석 연구에서는 연구 수가 확보되는 경우 무선효과모형을 적용한다(홍세희·노연경·정송, 2016). 본 연구도 분석 대상 논문들이 서로 다른 속성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질적이지 않다고 판단하여 무선효과모형을 적용하였다. 그리고 이질성의 원인을 살펴보기 위하여 하위집단 분석과 메타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2) 출판 편의 가능성 검토

일반적으로 표본이 큰 연구의 경우에는 통계적 유의성과 관계없이 출판되는 경향이 있다. 반면 표본이 작은 연구의 경우에는 효과크기가 크면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출판되지만, 효과크기가 작을 때에는 유의하지 않아 출판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홍세희, 2013). 이러한 출판 편의를 확인하기 위하여 네 가지 방법을 사용하였다. 먼저, 효과크기를 x 축으로 하고 표준오차를 y 축으로 하는 Funnel plot을 그린 후, 각 연구의 효과크기들이 평균 효과크기를 중심으로 좌우 대칭으로 분포되어 있는지 살펴보았다. 분포가 대칭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출판 편의의 가능성을 의심할 수 있기 때문에, Trim과 Fill 방법을 사용하여 그 차이가 얼마나 되는지 살펴보았다. 이 방법은 그 래프를 좌우 대칭으로 만들어주는 가상의 연구들의 효과크기를 삽입하여 교정한 효과크기 값과 원래의 효과크기 값을 비교할 수 있는 방법이다(홍세희 등, 2016). 세 번째로, Orwin(1983)이 제안한 안전성 계수(fail-safe N)를 계산하였다. 이 계수는 메타 분석에서 산출된 효과크기가 의미 없는 효과크기로 감소되려면 몇 편의 결측된 연구

를 더 추가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값이 작을수록 분석에서 산출된 효과크기가 더 쉽게 부정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값이 클수록 출판 편의의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Egger의 절편 검증을 실시하였다. 이 검증은 정확성을 독립변수로 하고 효과크기를 종속변수로 한 회귀분석을 실시하는 것인데, 분석 결과 절편이 0이 아니고 유의하면 출판 편의의 가능성을 의심해 볼 수 있다(Rothstein, 2008).

III. 결과

1. 집단주의와 개인주의 간 차이에 대한 평균 효과크기와 이질성 검증

집단주의와 개인주의 간 차이에 대한 연구 별 효과크기와 전체 연구에 대한 평균 효과크기를 표 1에 제시하였다. 41개 연구에 대한 평균 효과크기는 $0.34(p<.001)$ 로 집단주의 성향이 개인주의 성향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Cohen(1988)이 제시한 기준에 의하면 작은 크기(0.20)에서 중간 크기(0.50) 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연구들 간 효과크기의 이질성을 통계적으로 검증하는 Q 값이 518.93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p<.001$), 41개의 효과크기들이 동질적이지 않고 이질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본 연구에서 무선효과모형을 선택한 것이 타당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효과크기의 이질성의 정도를 백분율로 표시하는 I^2 값이 92.29%로 나타나, Higgins, Thompson, Deeks 및 Altman(2003)의 기준으로 연구들 간 효과크기의 이질성이 상당히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이질성의 원인을 살펴보기 위하여 메타 회귀분석과 하위집단 분석을 실시하였다. 효과크기의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되는 변수가 연속형이면 메타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범주형이면 하위집단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1> 연구 별 문화성향 차이에 대한 효과크기

논문 저자	연도	Hedges' <i>g</i>	<i>SE</i>	95% 신뢰구간	<i>Z</i>	<i>p</i>	<i>Q</i>
구재선·김의철	2006	0.25	.08	[0.09~0.41]	3.00	.003	
금명자(성인 표본)	2002	0.37	.16	[0.06~0.68]	2.35	.019	
금명자(청소년 표본)	2002	-0.02	.18	[-0.37~0.33]	-0.11	.912	
김완석·김영진	1997	0.63	.12	[0.40~0.86]	5.37	<.001	
김은정·조용래	2008	0.72	.08	[0.57~0.88]	-9.10	<.001	
김진주 외 3명	2007	0.10	.17	[-0.23~0.43]	0.59	.554	
남순현·권정혜	2015	0.17	.03	[0.11~0.23]	5.67	<.001	
류승아	2009	-0.19	.08	[-0.34~-0.03]	-2.34	.019	
류승아	2010	-0.37	.09	[-0.54~-0.20]	-4.31	<.001	
문광수 외 2명	2014	0.34	.07	[0.19~0.48]	4.57	<.001	
박현경·이영희(성인 표본)	2004	0.34	.10	[0.15~0.53]	3.44	.001	
박현경·이영희(청소년 표본)	2004	0.67	.13	[0.42~0.92]	5.29	<.001	
서신화 외 2인(연구 2)	2016	0.75	.13	[0.48~1.01]	5.54	<.001	
서영석	2005	0.89	.19	[0.52~1.27]	4.69	<.001	
서영석 외 2명	2006	0.90	.11	[0.68~1.11]	8.12	<.001	
송지연·박기환	2009	-0.02	.05	[-0.12~0.09]	-0.28	.777	
신흥임(연구 1)	2015	0.36	.22	[-0.06~0.78]	1.69	.091	
우영지·이기학	2011	0.16	.09	[-0.01~0.33]	1.82	.069	
윤상연 외 3명	2013	0.01	.14	[-0.26~0.29]	0.10	.924	
윤인·김기범	2003	0.07	.07	[-0.07~0.21]	0.97	.333	
이성수·김정식	2008	0.36	.08	[0.21~0.51]	4.69	<.001	
이재식	2013	-0.17	.16	[-0.48~0.14]	-1.05	.293	
이재식 외 2명	2012	0.67	.07	[0.53~0.81]	9.55	<.001	
이종목·이은희	1997	0.79	.07	[0.65~0.93]	11.05	<.001	
임소은·박혜경	2015	1.61	.21	[1.20~2.02]	7.65	<.001	
장수지 외 2명	2014	0.53	.04	[0.44~0.62]	12.14	<.001	
정태연·송관재(대학생 표본)	2006	0.19	.10	[-0.01~0.39]	1.89	.059	
정태연·송관재(성인 표본)	2006	0.78	.11	[0.55~1.00]	6.80	<.001	
조금호(연구 1)	2002	0.08	.09	[-0.09~0.25]	0.93	.354	
조금호(연구 2)	2002	0.18	.17	[-0.15~0.51]	1.06	.290	
조금호(연구 1)	2003	0.12	.08	[-0.05~0.29]	1.42	.155	
조금호(연구 3)	2005	0.43	.06	[0.32~0.54]	7.66	<.001	
조금호·김소연(연구 2)	1998	0.34	.23	[-0.10~0.78]	1.52	.128	

조금호·김은진(연구 1)	2001	0.12	.09	[-0.05~0.29]	1.39	.164
조금호·김은진(연구 2)	2001	0.67	.16	[0.36~0.98]	4.26	<.001
조금호·명정완(연구 1)	2001	0.35	.04	[0.27~0.43]	8.47	<.001
조금호·명정완(연구 2)	2001	-0.09	.07	[-0.22~0.03]	-1.44	.151
조영호 외 2명	2002	0.48	.09	[0.32~0.65]	5.64	<.001
홍기원(연구 2)	2008	-0.46	.18	[0.10~0.81]	2.51	.012
홍승범·박혜경(연구 1)	2013	0.10	.06	[-0.03~0.22]	1.57	.117
홍승범·박혜경(연구 2)	2013	0.23	.06	[0.11~0.35]	3.80	<.001
전체		0.34	.05	[0.25~0.43]	7.30	<.001 51893***

2. 조절효과 검증

1) 메타 회귀분석

메타 회귀분석은 하나 이상의 예측변수(조절변수)를 투입하여 회귀분석하는 방법이다. 일반 회귀분석에서의 분석 단위가 개인 수준이라면, 메타 회귀분석에서는 연구가 분석의 단위가 된다(홍세희, 2013). 본 연구에서는 논문의 출판 연도, 척도의 신뢰도, 연구참가자들의 성별 및 연령을 예측변수로 투입하고 문화성향 차이의 효과크기를 준거변수로 놓은 메타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표 2에 제시하였다. 먼저, 출판 연도와 성별을 예측변수로 하였을 때 기울기 추정값이 0에 가깝고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논문이 게재된 시기와 성별은 문화성향의 차이와 관련이 없는 것을 알 수 있었다.⁴⁾ 반면, 연령을 예측변수로 하였을 때 기울기 추정값이 0.02로 유

<표 2> 메타 회귀분석 결과

예측 변수	기울기 추정값	SE	95% 신뢰구간	Z	p
출판 연도	0.00	0.01	[-0.02~0.03]	0.13	.894
성별	-0.01	0.00	[-0.01~0.00]	-1.59	.113
연령	0.02	0.01	[0.00~0.03]	2.27	.023
척도의 신뢰도	-2.29	1.11	[-4.47~-0.11]	-2.06	.040

4) 논문이 게재된 시기 외에 자료 수집 시기와 1차 원고 투고 시점을 예측 변수로 하여 분석을 실시하였으나 조절효과는 여전히 유의미하지 않았다.

의하여($p=.023$), 연구참가자들의 나이가 많을수록 집단주의 성향이 개인주의 성향보다 더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척도의 신뢰도를 예측변수로 하였을 때 기울기 추정값이 -2.29 로 유의하여($p=.040$), 척도의 신뢰도가 높을수록 효과크기가 작은 것을 알 수 있었다.

2) 하위집단 분석

하위집단 분석은 효과크기가 각 예측변수의 하위집단에 따라 서로 다른 지 검증하는 방법이다(홍세희, 2013). 먼저, 연령대에 따른 효과크기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연구참가자들의 연령에 따라 네 개의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청소년, 대학(원)생, 성인 (연구참가자들의 직업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와 표본에 대학생과 대학원생 및 직장인이 함께 포함된 경우) 및 기타(청소년과 성인이 함께 포함된 경우). 기타 집단의 결과를 보고한 연구 한 개를 제외한 후 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표 3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세 개 집단에 따른 연구들 간의 이질성이 유의하였고, $Q(2)=9.43$, $p=.009$, 세 집단의 효과크기가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성인 집단의 경우, 청소년 집단 및 대학(원)생 집단에 비하여 집단주의 성향이 개인주의 성향보다 더 강한 경향이 있었다.

<표 3> 연령대 별 하위집단 분석 결과

집단	연구 수	Hedges' g	SE	95% 신뢰구간	Z	p
청소년	8	0.23	.10	[0.04~0.42]	2.42	.016
대학(원)생	21	0.27	.06	[0.14~0.39]	4.29	<.001
성인	11	0.55	.08	[0.39~0.72]	6.71	<.001
이질성 검증		$Q(2)=9.43$, $p=.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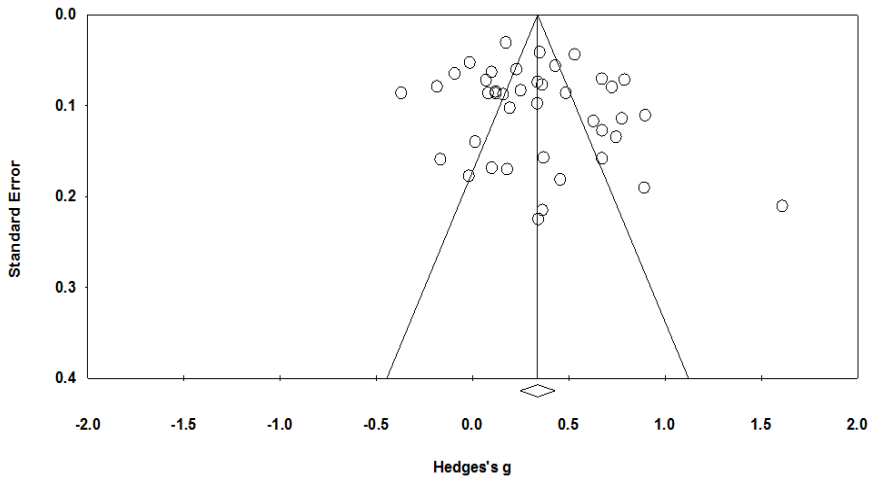
다음으로, 연구에 사용되었던 문화성향 척도에 따른 효과크기를 살펴보고, 그 결과를 표 4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척도에 따른 연구들 간의 이질성이 유의하였고, $Q(1)=4.31$, $p=.038$, 두 척도의 효과크기가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Singelis 등(1995)의 Individualism-Collectivism Scale과 Singelis(1994)의 Self-Construal Scale을 사용하여 문화성향을 측정한 경우 모두 개인주의 성향보다 집단주의 성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고, Singelis(1994)의 척도를 사용한 연구에서의 효과크기가 Singelis 등(1995)의 척도를 사용한 연구에서의 효과크기보다 더 큰 경향이 있었다.

<표 4> 척도 별 하위집단 분석 결과

척도	연구 수	Hedges' g	SE	95% 신뢰구간	Z	p
Singelis(1994)	8	0.55	.11	[0.33~0.76]	4.93	<.001
Singelis 등 (1995)	33	0.29	.05	[0.19~0.39]	5.62	<.001
이질성 검증			$Q(1)=4.31, p=.0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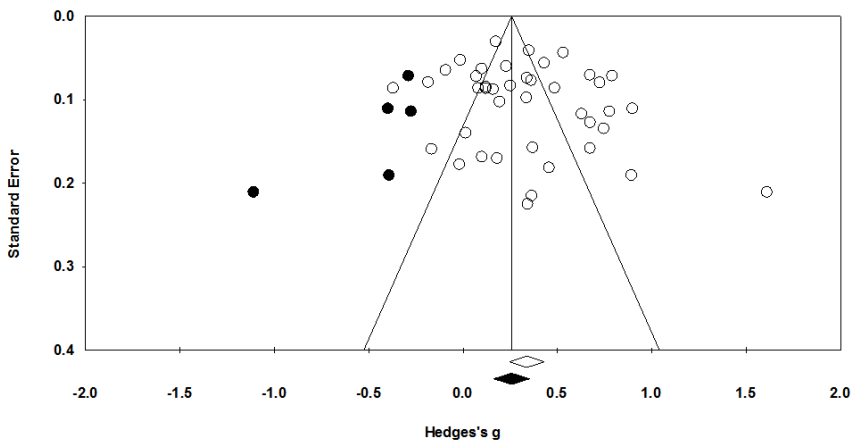
3. 출판 편의

출판 편의의 가능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먼저 Funnel plot을 검토하였다. 그림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표준오차가 커질수록(즉, 표본이 작은 연구일수록) 평균 효과크기를 중심으로 좌우가 완전히 대칭적이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의하지 않아서 출판되지 않았을 연구들이 존재할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므로, 그림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Trim과 Fill 방법을 사용하여 결측이 생겼을 것으로 가정되는 연구들을 추가하여 교정된 효과크기를 구하였다. 그 결과, 교정 후의 평균 효과크기가 0.26으로 나타나 교정 전의 평균 효과크기인 0.34보다 약간 작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Orwin(1983)이 제안한 방법으로 안전성 계수(fail-safe N)을 계산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 산출된 효과크기가 의미 없는 효과크기인 0.15로 감소하려면 효과크기가 0.10인 연구들이 몇 개가 필요한 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본 연구에서 관찰된 효과크기가 0.15보다 작아지려면 총 112개의 연구들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Egger의 절편 검증을 통해 출판 편의의 가능성을 살펴본 결과, 절편의 값이 1.44로 나타났으나 유의하지는 않았다($p=.248$). 종합하면, 본 연구 결과에서 출판 편의의 가능성은 낮다고 해석할 수 있으나, 실제 평균 효과크기가 본 연구에서 산출된 효과크기보다 약간 작을 수도 있음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주. ○=메타분석에 포함된 연구들의 효과크기, ◇=메타분석으로 산출된 평균 효과크기

[그림 1] 문화성향 연구들에 대한 Funnel Plot



주. ○=메타분석에 포함된 연구들의 효과크기, ●=삽입된(imputed) 가상의 효과크기, ◇=메타분석으로 산출된 평균 효과크기, ◆=삽입된 값을 고려하여 조정된 평균 효과크기

[그림 2] Trim과 Fill 결과

IV. 논의

1. 연구 결과 요약 및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한국인의 집단주의 성향과 개인주의 성향 간 차이의 효과크기를 살펴 보기 위하여, 개인의 문화성향을 Singelis(1994)의 Self-Construal Scale이나 Singelis 등(1995)의 Individualism-Collectivism Scale을 사용하여 측정한 국내 학술지 논문들을 대상으로 메타분석을 실시하였다. 1997년부터 2017년 사이에 출판된 34편의 논문에서 수집한 41개의 효과크기를 분석하여 얻은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주의 성향보다 집단주의 성향이 상대적으로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Cohen(1988)의 기준에 의하면 그 차이는 작은 크기에서 중간 크기 범위에 속하였다. 둘째, 연령대가 높을수록 집단주의 성향이 개인주의 성향보다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척도의 신뢰도가 높을수록 집단주의 성향과 개인주의 성향 간의 차이는 작아졌으며, Singelis 등(1995)의 척도를 사용했을 때보다 Singelis(1994)의 척도를 사용했을 때 문화성향 간의 차이가 더 컸다. 넷째, 연구참가자의 성별과 논문의 출판 연도는 문화성향의 차이와 관련이 없었다. 마지막으로, 출판 편의의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가장 큰 의의는 집단주의 성향 및 개인주의 성향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수행되었던 개별 연구들을 종합하여 일반적인 결론을 도출했다는 데 있다. 20여 년 간 다수의 연구자들이 다양한 표본을 대상으로 수행했던 연구들을 종합한 결과, 큰 차이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한국인들의 경우 개인주의 성향에 비하여 집단주의 성향을 보다 강하게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인의 문화성향을 개인주의적이라기보다 집단주의적이라고 기술하는 것이 타당함을 실증적으로 뒷받침하는 동시에, 한국인들의 집단주의 성향이 개인주의 성향보다 현저하게 두드러지는 것 역시 아님을 보여준다. 이처럼 집단주의 성향과 개인주의 성향 간의 차이가 작은 크기에서 중간 크기 범위로 나타난 이유가 한국인들의 점차 개인주의화 되어가고 있기 때문인지, 혹은 한국인들은 집단주의적이라는 기존의 가정 자체가 한국인의 실제 문화 성향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인지 본 메타분석만으로 답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후술하는 바와 같이, 한국인의 문화성향에 대한 경험적 자료가 보다 많이 축적되었을 때 메타분석이 다시 시도되거나, 종단 연구를 통해 한국인의 문화성향의 변화와 안정성을 추적 조사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또 다른 의의는 개별 연구에서 검증할 수 없는, 연구 수준의 조절변수들

이 집단주의 및 개인주의 성향에 대하여 어떠한 효과를 가지는지 살펴보았다는 데 있다. 구체적으로, 본 메타분석에서는 논문 출판 연도로 대표되는 자료 수집 시기, 연구 참가자들의 성별과 연령, 측정의 신뢰도 및 척도의 내용을 조절변수로 고려하였다. 그 결과 첫째, 연구참가자들의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개인주의 성향보다 집단주의 성향이 더욱 강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본 메타분석에 다양한 시점에서 수집된 자료들이 포함되었음을 고려할 때, 이러한 결과는 특정 동세대 집단(cohort) 특유의 특성이 반영된 것이라기보다 문화적 경험이 축적됨으로써 나타나는 일반적인 결과, 즉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자신이 속한 문화에 더욱 많이 노출되어 해당 문화의 전형적인 특성을 더 많이 보유하게 되었기에 나타난 결과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Goh, Chee, Tan, Venkatraman, Hebrank, Leshikar, et al., 2007).

둘째, 측정에 사용된 척도의 신뢰도가 높을수록 집단주의 성향과 개인주의 성향 간의 차이는 작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측정의 신뢰도가 높을수록 명확한 차이를 관찰할 수 있으리라는 상식에 일견 배치되는 것으로 보이나, Oyserman과 동료들(2002)의 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구체적으로, Oyserman과 동료들은 당시 까지 영문으로 출판되어 있던 한국 자료를 척도의 신뢰도 계수가 .70 이상인 경우와 미만인 경우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집단주의 척도와 관련해서는 의미 있는 차이를 관찰하지 못하였으나, 개인주의 척도와 관련해서는 척도의 신뢰도가 낮은 경우(즉, 신뢰도<.70)에 비하여 높은 경우(즉, 신뢰도≥.70) 오히려 효과크기가 작다는 점을 관찰하였다. 이러한 결과에 대하여 Oyserman과 동료들은 분석 대상 연구들에서 사용되었던 개인주의 척도가 한국인의 문화성향을 측정하는 데 적절하지 않았을 가능성, 즉 척도 내용의 타당도에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본 메타분석에서도 Oyserman과 동료들의 연구와 부분적으로 일관된 결과가 관찰된 만큼, 아래에 기술하는 바와 같이 분석 대상 연구들에서 사용된 측정 척도에 따라 효과크기가 달라졌는지 살펴보고, 그러한 차이가 척도 내용의 차이로 설명될 수 있는지 검토하였다.

셋째, Singelis 등(1995)의 척도를 사용했을 때보다 Singelis(1994)의 척도를 사용했을 때 집단주의 성향과 개인주의 성향 간의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가 척도 내용의 차이로 설명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두 척도 항목들의 내용을 분석하였다. 내용 분석을 위하여 Oyserman과 동료들(2002)에 제시된, 집단주의-개인주의 척도들을 구성하는 요인들을 기준으로 삼았다. 구체적으로, Oyserman과 동료들의 연구에는 8개의 집단주의 요인과 7개의 개인주의 요인이 제시되어 있다. 집단주의 요인에는 연결(Related), 소속(Belong), 의무(Duty), 조화(Harmony), 조언(Advice), 맥락

(Context), 위계(Hierarchy) 및 집단(Group)이 포함되며, 개인주의 요인에는 독립(Independent), 목표(Goals), 경쟁(Compete), 독특한(Unique), 사적인(Private), 자신을 아는(Self-know) 및 직설적으로 소통하는(Direct communicate)이 포함된다. 이러한 집단주의와 개인주의의 요인들을 숙지한 후, 본 논문의 제1저자와 제2저자가 척도들을 독립적으로 내용 분석하였다. Singelis(1994)의 척도는 집단주의와 개인주의 항목들 각각 12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Singelis 등(1995)의 척도는 집단주의와 개인주의 항목들 각각 16개로 구성되어 있다. Singelis(1994) 척도의 집단주의와 개인주의 항목들에 대해서는 두 저자들 간의 내용 분류 일치도가 각각 75%였으며, Singelis 등(1995)의 척도의 경우 각각 94%와 100%였다. 내용 분류 불일치는 토의를 통해 해소하였다. 보다 중요하게, Singelis(1994) 척도에서는 집단주의와 관련하여 조화의 비중이 가장 크며(전체 척도 항목들 가운데 33%가 조화를 측정), 개인주의와 관련해서는 독립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42%). 이와는 달리, Singelis 등(1995)의 척도에서는 집단주의와 관련하여 의무의 비중이 가장 크며(38%), 개인주의와 관련해서는 경쟁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50%).

Oyserman과 동료들(2002) 또한 척도에 포함된 집단주의 및 개인주의 영역에 따라 국가 간 문화성향 차이가 달라지는지 분석하였으므로, 본 연구의 결과를 Oyserman과 동료들의 결과와 견주어 볼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Oyserman과 동료들은 비교를 위한 자료가 충분한 몇몇 국가들과 미국 사이의 문화성향 차이가 척도의 내용 영역에 따라 달라지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집단주의 성향에 있어 홍콩계 중국인 대 미국인의 차이는 ‘조화’가 포함되었을 때 더 크게 나타났다. 이와 일관되게, 본토 중국인 대 미국인의 차이는 ‘조화’가 포함되지 않았을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수준에 머물렀으나, ‘조화’가 포함되었을 때에는 매우 큰 효과크기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일본인 대 미국인의 차이는 ‘조화’를 비롯한 대부분의 내용 영역에 대하여 예상과는 반대로, 즉 미국인의 집단주의 성향이 일본인보다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컨대, 일본인과 미국인 간 비교에서는 예상과 반대의 결과가 관찰되었으나, 홍콩계 중국인 및 본토 중국인과 미국인 간 비교에서는 일관되게 ‘조화’가 집단주의 성향을 측정하는데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소로 나타났다. 한편, Oyserman과 동료들에 따르면, 개인주의 성향에 있어 일본인 대 미국인의 차이는 척도에 ‘경쟁’ 영역이 포함되었을 때 오히려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Oyserman과 동료들은 ‘경쟁’이 개인주의와 무관한 구성개념일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종합하자면, 집단주의 성향을 ‘조화’ 중심으로 평가하는 Singelis(1994)의 척도를 사용한 연구들에서 문화성향

간 차이가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나타난 반면, 개인주의 성향을 ‘경쟁’ 중심으로 평가하는 Singelis 등(1995)의 척도를 사용한 연구들에서 문화성향 간의 차이가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난 본 메타분석의 결과는, ‘조화’가 한국인들의 집단주의 성향을 측정하는데 적절하게 적용될 수 있는 요소인 반면, ‘경쟁’은 한국인들의 개인주의 성향을 측정하는 데 적절하게 적용되기 어려운 요소일 가능성을 시사한다.⁵⁾

마지막으로, 일반적인 생각과는 다르게 문화성향에서 성차는 관찰되지 않았다. 통상 여성에 비하여 남성이 더 집단주의적이며 남성에 비하여 여성은 더 개인주의적인 것으로 예상하나, 그러한 예상을 지지하는 결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시간의 흐름에 따라 한국인이 보다 개인주의적이 되어간다는 생각을 실증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논문 출판 연도에 따라 집단주의 성향과 개인주의 성향 간의 차이가 줄어드는지 살펴보았으나, 그와 같은 결과 역시 관찰되지 않았다. 논문 출판 연도가 실제 자료 수집 시기를 대표하기에 충분히 정교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어, 구체적인 자료 수집 시기가 보고되어 있는 논문들의 경우 자료 수집 시기를 예측 변수로 하여 추가적인 분석을 실시하였으나 조절효과는 여전히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논문 출판 연도를 1차 원고 투고 시점으로 대체하여 분석하였을 때에도 마찬가지였다. 이러한 결과는 본 메타분석에 포함된 연구들이 발표된 20여 년의 시간이 한국인의 문화성향 변화를 포착하는 데 충분히 긴 시간이 아니었기 때문일 수 있고, 일반의 짐작과 달리 실제로는 한국인의 문화성향이 시간에 걸쳐 유의하게 변화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향후 한국인의 문화성향에 대한 경험적 자료가 보다 많이 축적되었을 때 메타분석이 다시 시도되거나, 긴 시간에 걸친 종단 연구를 통해 한국인의 문화성향의 변화와 안정성을 추적 조사한다면, 이 문제에 대해 보다 명확한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 연구의 제한점 및 추후 연구 방향

본 메타분석은 다음과 같은 제한점들을 지닌다. 첫째, 분석에 포함된 개별 표본들의 수가 적은 편이다. 메타분석에서는 독립된 개별 표본이 분석의 기본 단위가 되는데, 만약 개별 표본의 수가 너무 적다면 2차 표집오차(second-order sampling error)가 발생할 수 있다(홍세정 장재윤, 2015). 그런데 개별 연구들의 표집오차가 교정될

5) ‘의무’와 ‘독립’의 경우 집단주의 성향과 개인주의 성향을 측정할 때 모든 연구들에서 빠짐 없이 포함시켰던 영역들이었으므로, 이 영역들이 포함되었을 경우와 포함되지 않았을 경우 국가 간 문화성향 차이가 얼마나 증감하는지 평가할 수 없었다(Oyserman et al., 2002).

수 있는 것과는 달리, 2차 표집오차는 메타분석에서 직접 교정될 수 없고 오직 충분한 수의 연구들을 확보하는 것을 통해서만 최소화될 수 있다(Hunter and Schmidt, 2004). 그러므로 본 메타분석 결과의 일반화 가능성과 시간에 따른 변화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향후 한국인의 문화성향에 대한 경험적 연구 결과들이 더 많이 축적되었을 때 새로이 메타분석이 시도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메타분석에는 자기보고식 척도를 사용하여 개인의 문화성향을 측정한 연구들만이 포함되었다. 그러나 심리 과정과 사회문화적 환경이 상호 구성함(mutual constitution)에 주목하여(Markus and Hamedani, 2007), 사회문화적 환경을 측정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연구들이 문화심리학 내에서 늘어나고 있다(Kim and Markus, 1999; Miyamoto, Nisbett and Masuda, 2006; Na, Kosinski and Stillwell, 2015; Tsai, Louie, Chen and Uchida, 2007). 이러한 연구 흐름의 일부로, 한 선행 연구에서 문화적 산물(cultural products) -즉, 광고, 대중서와 같이 많은 이들에 의해 공유되는 유형의 문화적 표상- 에 있어서의 문화 차이를 측정했던 연구들을 메타분석한 바 있다(Morling and Lamoreaux, 2008). 그 결과, 문화적 산물에 드러난 집단주의-개인주의의 문화차는 자기보고식 척도로 측정된 집단주의-개인주의의 문화차보다 그 효과크기가 컸다. 본 논문에 보고된 메타분석에서 한국인들의 집단주의 성향과 개인주의 성향 간의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으나, 선행 연구(Morling and Lamoreaux, 2008)의 결과를 토대로 추론한다면 문화적 산물에 관한 연구들에서는 개인주의 성향에 비하여 집단주의 성향이 보다 현저하게 나타났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한국 문화의 문화적 산물에 반영된 집단주의와 개인주의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다른 문화권의 문화적 산물과 비교하는 차원에서 수행되었던 몇몇 연구들(Kim and Markus, 1999; Na et al., 2015)을 제외하고는 매우 드물게 발견된다. 문화적 산물과 같이 가시적이고 문화의 구성원들 사이에서 널리 공유되는 요소들을 통해 문화의 특징을 더 명확하게 포착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난 만큼(Morling and Lamoreaux, 2008; see also Lamoreaux and Morling, 2012), 후속 연구에서는 한국 문화의 문화적 산물에 반영된 집단주의와 개인주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셋째, 메타분석은 개별 연구들을 종합하여 일반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게 해주고, 개별 연구에서 검증할 수 없는 연구 수준의 조절변수들이 어떠한 효과를 가지는지 살펴볼 수 있게 해주는 등의 장점을 지닌 반면, 문화를 단순화시켜 파악함으로써 문화의 역동성을 간과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는 등의 약점도 지니고 있다. 구체적으로, 본 메타분석에는 한국인의 문화성향을 설명하기 위해 제안된 대안적인 문화적 자

기관(예: 일본인의 대상성 자기와 대비되는 한국인의 주체성 자기; 이누미야 요시유키, 2004, 2009; 이누미야 요시유키·김윤주, 2006; 한민·이누미야 요시유키·김소혜·장웨이, 2009)에 대한 연구들이 포함되지 않았다. 그간 “한국인들의 문화성향은 집단주의적이라기보다 관계주의적”이라는 주장과 같이 한국인의 문화성향을 집단주의 대 개인주의 차원 이외의 방식으로 개념화하려는 시도가 있어 왔다(허태균, 2015). 그러나 상대적으로 더 많은 수의 선행 연구들이 집단주의 대 개인주의 차원을 토대로 한국인들의 문화성향을 파악하고 설명해왔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인들의 집단주의 성향과 개인주의 성향을 측정하였던 연구들을 메타분석 하였다. 후속 연구에서는 집단주의 대 개인주의 차원의 대안으로 제시된 문화적 자기관들을 비롯하여, 한국인의 문화성향에 대한 여러 토착심리학적 접근(예: 한국인의 ‘우리성’; 최상진, 2011)이 집단주의 대 개인주의 차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얼마나 더 크거나 작은 설명력을 가지는지 비교 검토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구재선·김의철. 2006. “심리적 특성, 생활 경험, 행복의 통합적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0: 1-18.
- 금명자. 2002. “청소년 내담자와 상담자의 상담에 대한 기대 차이 및 문화적 특성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4: 529-546.
- 김경민·박동진. 2011. “개인주의 · 집단주의와 조직 공정성(Organizational Justice)에 대한 인식이 조직 내 구성원의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문제》 17: 395-413.
- 김완석·김영진. 1997. “주관적 안녕 척도.”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3: 61-81.
- 김은정·조용래. 2008. “가해염려를 동반한 사회공포증과 분노관련 변인들 및 개인주의-집단주의 성향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7: 613-632.
- 김진주·구자영·허성용·서은국. 2007. “정서 경험의 긍정성 비율과 변영.”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1: 89-100.
- 김혜숙. 1995. “귀인상황의 공개성과 (집단)자아존중이 자기고양 귀인과 집단고양 귀인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9: 45-63.
- 김혜진·김비아·이재식. 2012. “조직구성원의 문화성향에 따른 조직시민행동의 차이: 조직지원인식의 조절효과와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산업 및 조직》 25: 265-297.
- 나은영·민경환. 1998. “한국 문화의 이중성과 세대차의 근원에 대한 이론적 고찰 및 기존

- 조사자료 재해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4: 75-93.
- _____. 차유리. 2010. “한국인의 가치관 변화 추이: 1979년, 1998년, 및 2010년의 조사 결과 비교.”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4: 63-93.
- _____. 차재호. 1999. “1970년대와 1990년대 간 한국인의 가치관 변화와 세대차 증감.”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3: 37-60.
- 남순현·권정혜. 2015. “개인주의-집단주의와 자기개방이 가족친밀감에 미치는 영향: 온, 오프라인 교류비교.”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4: 353-378.
- 류승아. 2009. “정신장애인의 경쟁고용에 대한 대학생들의 태도.”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3: 1-25.
- _____. 2010. “자아존중감과 문화적 성향과의 관계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4: 169-183.
- 문광수·이재희·오세진. 2014. “개인주의-집합주의 성향과 성과급 형태가 임금만족에 미치는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0: 235-262.
- 박서영·박성연. 2012. “청소년의 도덕적 정서와 문화성향에 따른 지인 및 타인에 대한 친사회적 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5: 85-106.
- 박현경·이영희. 2004. “집단상담 참가자의 개인주의-집단주의 성향, 상담자 역할기대 및 치료적 요인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6: 571-596.
- 서신화·허태균·한민. 2016. “역물 경험의 과정과 특성에 대한 실증적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2: 643-674.
- 서영석. 2005. “내담자의 정서표현에 대한 상담자의 인식: 비교 문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 335-351.
- 서영석·이정림·차주환. 2006. “성역할태도, 종교성향, 권위주의 및 문화적 가치가 대학생의 동성애혐오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8: 177-199.
- 설선헌·최인철. 2009. “분석적-종합적 인지양식과 파급효과의 예측.”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3: 19-38.
- 송지연·박기환. 2009. “가해염려형 사회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문화적 변인.”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4: 329-343.
- 신홍임. 2015. “문화성향은 윤리적 의사결정의 과정에 영향을 주는가?”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1: 67-96.
- 우영지·이기학. 2011. “여대생의 문화성향 군집에 따른 다중역할계획태도, 성취동기, 자기효능감의 차이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3: 405-425.
- 윤상연·서신화·김현정·허태균. 2013. “인지부조화의 발생에서 문화 차이의 의미: 태도 중요도의 역할.”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9: 69-86.
- 윤인·김기범. 2003. “한국 고등학생의 문화적 자기개념과 Gestalt Contact Boundary Disturbances 관계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7: 35-57.

- 이누미야 요시유키. 2004. “한일 비교 성격론.” 《인본연구》 11: 101-124.
- _____. 2009. “주체성-대상성 자기와 긍정적 환상의 관계에 관한 한일비교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8: 115-146.
- _____. 김윤주. 2006. “긍정적 환상의 한일비교: 주체성 자기와 대상성 자기에 의한 설명.”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0: 19-34.
- 이성수·김정식. 2008. “상사-부하간 유사성이 부하의 소진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3: 141-167.
- 이재식. 2013. “위험 운전상황에서 운전자의 문화성향에 따른 귀인양식의 차이: 운전 시뮬레이션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9: 367-388.
- _____. 김해진·김비아. 2012. “조직구성원의 문화성향에 따른 조직시민행동의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산업 및 조직》 25: 265-297.
- 이종목·이은희. 1997. “직무스트레스와 조직행동 간의 인과적 관계모형 검증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 127-156.
- 임소은·박혜경. 2015. “문화성향에 따른 거절 반응과 예측의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1: 279-297.
- 장수지·김수영·Kobayashi, Erika. 2014. “연령집단 별 문화성향과 공동체의식 간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8: 1-27.
- 정태연. 2001. “성격특질차원에서의 행동일관성에 나타난 한국문화의 특성.”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0: 279-303.
- _____. 송관재. 2006. “한국인의 가치구조와 행동판단에서의 이중성.”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2: 49-68.
- 조궁호. 2000. “문화유형과 동기의 차이: 한국인의 동기 이해를 위한 시론.”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4: 83-122.
- _____. 2002. “문화성향과 허구적 독특성 지각 경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6: 91-111.
- _____. 2003. “문화성향과 통제 양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7: 85-106.
- _____. 2005. “문화성향에 따른 유사성 판단의 비대칭성.”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9: 45-63.
- _____. 2007. 『동아시아 집단주의의 유학사상적 배경』 지식산업사.
- _____. 2012. 『사회관계론의 동·서 비교』 서강대학교 출판부.
- _____. 김소연. 1998. “점양 편향자의 선호 현상.”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2: 169-189.
- _____. 김은진. 2001. “문화성향과 동조행동.”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5: 139-165.
- _____. 명정완. 2001. “문화성향과 자의식의 유형.”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5: 111-139.
- 조영호·조윤형·안지혜. 2002. “조직구성원의 개인주의-집합주의 성향과 심리적 계약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산업 및 조직》 15: 89-111.

- 최상진. 2011. 『한국인의 심리학』 학지사.
- 한규석·신수진. 1999. “한국인의 선호가치 변화-수직적 집단주의에서 수평적 개인주의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3: 293-310.
- 한민·이누미야 요시유키·김소혜·장웨이. 2009. “새로운 문화-자기관 이론의 국가 간 비교연구:
한국, 중국, 일본 대학생들의 자기관.”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8: 49-66.
- 한성열. 2003. “자기고양 편파와 심리적 적응의 관계에 대한 비교문화 연구.” 《한국심리학
회지: 사회문제》 9: 79-99.
- 허태균. 2015. 『어쩌다 한국인』 중앙북스.
- 홍기원. 2008. “대학생들의 자존감 구성요인에 있어서 문화적, 성차의 효과.” 《한국심리학
회지: 여성》 13: 237-261.
- 홍세정·장재윤. 2015. “내적 동기와 창의성간의 관계에 대한 메타분석 연구.” 《한국심리학
회지: 일반》 34: 57-86.
- 홍세희. 2013. 『메타분석의 이론과 적용』 S&M 리서치 그룹.
- _____. 노언경·정송. 2016. “청소년의 자살생각과 보호요인에 대한 메타분석.” 《조사연구》
17: 137-166.
- 홍승범·박혜경. 2013. “문화성향과 사회적지지.”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2: 125-150.
- 경향비즈. “20~30대 청년 절반 “나는 ‘혼밥’, ‘혼술’ 즐기는 ‘나홀로족’.”
(<http://biz.khan.co.kr>에서 가용. 인터넷; 2017년 7월 31일 접속).

- Allen, Michael W., Sik Hung Ng, Ken'Ichi Ikeda, Jayum A. Javan, Anwarul Hasan Sufi,
Marc Wilson, and Kuo-Shu Yang. 2007. “Two decades of change in cultural
values and economic development in eight East Asian and Pacific Island nations.”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38: 247-269.
- Bontempo, Robert. 1993. “Translation fidelity of psychological scales: An item response
theory analysis of an individualism-collectivism scale.”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24: 149-166.
- Borenstein, Michael, Larry V. Hedges, Julian P. T. Higgins, and Hannah R. Rothstein.
2009. *Introduction to Meta-Analysis*. Chichester: John Wiley & Sons, Ltd.
- Borenstein, Michael, Larry V. Hedges, Julian P. T. Higgins, and Hannah R. Rothstein.
2014. *Comprehensive Meta-Analysis Vol.3, Computer software*. Englewood, NJ:
Biostat. Available from <https://www.meta-analysis.com>.
- Chan, Darius K.-S. 1994. “COLINDEX: A refinement of three collectivism measures.” pp.
200-210. in *Handbook of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Theory, method, and
applications*, edited by U. Kim, H. C. Triandis, C. Kagitcibasi, S. Choi, & G.
Yoon. Thousand Oaks, CA: Sage.

- Cohen, Dov. 2001. "Cultural variation: Considerations and implications." *Psychological Bulletin* 127: 451-471.
- Cohen, Jacob. 1988. *Statistical Power Analysis For the Behavioral Sciences*, 2nd Edition. Lawrence Erlbaum.
- Goh, Joshua O., Michael W. Chee, Jiat Chow Tan, Vinod Venkatraman, Andrew Hebrank, Eric D. Leshikar, Lucas Jenkins, Bradley P. Sutton, Angela H. Gutchess, and Denise C. Park. 2007. "Age and culture modulate object processing and object—scene binding in the ventral visual area." *Cognitive, Affective, & Behavioral Neuroscience* 7: 44-52.
- Hamamura, Takeshi. 2012. "Are cultures becoming individualistic? A cross-temporal comparison of individualism-collectivism i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Review* 16: 3-24.
- Harrison, Lawrence E., and Samuel P. Huntington. 2001. *Culture matters: How values shape human progress*. New York, NY: Basic Books.
- Heine, Steven J., and Darrin R. Lehman. 1999. "Culture, self-discrepancies, and self-satisfactio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5: 915-925.
- Heine, Steven J., Darrin R. Lehman, Hazel R. Markus, and Shinobu Kitayama. 1999. "Is there a universal need for positive self-regard?" *Psychological Review* 106: 766-794.
- Henrich, Joseph, Steven J. Heine, and Ara Norenzayan. 2010. "The weirdest people in the world?" *Behavioral and Brain Sciences* 33: 61-83.
- Higgins, Julian P. T., Simon G. Thompson, Jonathan J. Deeks, and Douglas G. Altman. 2003. "Measuring inconsistency in meta-analyses." *BMJ: British Medical Journal* 327: 557-560.
- Hofstede, Geert. 1980. *Culture's Consequences: International Differences in Work-Related Values*. Beverly Hills, CA: Sage.
- Holt, Jennifer L., and Cynthia James DeVore. 2005. "Culture, gender, organizational role, and styles of conflict resolution: A meta-analysis."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29: 165-196.
- Hui, C. Harry. 1988. "Measurement of individualism-collectivism."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22: 17-36.
- Hunter, John E., and Frank L. Schmidt. 2004. *Methods of meta-analysis: Correcting error and bias in research findings*, 2nd Edition. Thousand Oaks, CA: Sage.
- Inkeles, Alex. 1975. "Becoming modern: Individual change in six developing countries." *Ethos* 3: 323-342.
- Kashima, Yoshihisa, Paul Bain, Nick Haslam, Kim Peters, Simon Laham, Jennifer Whelan,

- Brock Bastian, Stephen Loughnan, Leah Kaufmann, and Julian Fernando. . 2009. "Folk theory of social change." *Asi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2: 227-246.
- Kim, Heejung, and Hazel R. Markus. 1999. "Deviance or uniqueness, harmony or conformity? A cultural analysi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7: 785-800.
- Kitayama, Shinobu, Hazel Rose Markus, Hisaya Matsumoto, and Vinai Norasakkunkit. 1997. "Individual and collective process in the construction of the self: Self-enhancement in the United States and self-criticism in Japa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2: 1245-1267.
- Lamoreaux, Marika, and Beth Morling. 2012. "Outside the head and outside individualism-collectivism: Further meta-analyses of cultural products."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43: 299-327.
- Markus, Hazel R., and Shinobu Kitayama. 1991. "Culture and the self: Implications for cognition, emotion, and motivation." *Psychological Review* 98: 224-253.
- Markus, Hazel R., and Maryam G. Hamedani. 2007. "Sociocultural psychology: The dynamic interdependence among self systems and social systems." pp. 3-39 in *Handbook of Cultural Psychology*, edited by S. Kitayama & D. Cohen. New York, NY: Guilford.
- Masuda, Takahiko, and Richard E. Nisbett. 2001. "Attending holistically versus analytically: Comparing the context sensitivity of Japanese and America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1: 922-934.
- McClelland, David C. 1961. *The Achievement Society*. New York, NY: Free Press.
- Mezulis, Amy H., Lyn Y. Abramson, Janet S. Hyde, and Benjamin L. Hankin. 2004. "Is there a universal positivity bias in attributions? A meta-analytic review of individual, developmental, and cultural differences in the self-serving attributional bias." *Psychological Bulletin* 130: 711-747.
- Miller, Dale T., and Michael Ross. 1975. "Self-serving biases in the attribution of causality: Fact or fiction?" *Psychological Bulletin* 82: 213-225.
- Miyamoto, Yuri, Richard E. Nisbett, and Takahiko Masuda. 2006. "Culture and the physical environment: Holistic versus analytic perceptual affordances." *Psychological Science* 17: 113-119.
- Morling, Beth, and Marika Lamoreaux. 2008. "Measuring culture outside the head: A meta-analysis of individualism—collectivism in cultural product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Review* 12: 199-221.
- Morris, Michael W., and Kaiping Peng. 1994. "Culture and cause: American and Chinese

- attributions for social and physical even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7: 949-971.
- Na, Jinkyung, Michal Kosinski, and David J. Stillwell. 2015. “When a new tool is introduced in different cultural contexts: Individualism–collectivism and social network on Facebook.”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46: 355-370.
- Nisbett, Richard E. 2003. *The Geography of Thought: How Asians and Westerners Think Differently and Why*. New York, NY: Free Press.
- Nisbett, Richard E., Kaiping Peng, Incheol Choi, and Ara Norenzayan. 2001. “Culture and systems of thought: Holistic versus analytic cognition.” *Psychological Review* 108: 291-310.
- Norenzayan, Ara, Edward E. Smith, Beom Jun Kim, and Richard E. Nisbett. 2002. “Cultural preferences for formal versus intuitive reasoning.” *Cognitive Science* 26: 653-684.
- Orwin, Robert G. 1983. “A fail-safe N for effect size in meta-analysis.” *Journal of Educational Statistics* 8: 157-159.
- Oyserman, Daphna. 1993. “The lens of personhood: Viewing the self, others, and conflict in a multicultural socie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5: 993-1009.
- Oyserman, Daphna, Heather M. Coon, and Markus Kimmelmeier. 2002. “Rethinking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Evaluation of theoretical assumptions and meta-analyses.” *Psychological Bulletin* 128: 3-72.
- Oyserman, Daphna, and Spike Wing-Sing Lee. 2007. “Priming “culture”: Culture as situated cognition.” in *Handbook of Cultural Psychology*, edited by S. Kitayama & D. Cohen. New York, NY: Guilford.
- Peng, Kaiping, and Richard E. Nisbett. 1999. “Culture, dialectics, and reasoning about contradiction.” *American Psychologist* 54: 741-754.
- Prentice, Deborah A., and Dale T. Miller. 1993. “Pluralistic ignorance and alcohol use on campus: Some consequences of misperceiving the social nor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4: 243-256.
- Putnam, Robert D. 2000. *Bowling Alone: The Collapse and Revival of American Community*. New York, NY: Simon & Schuster.
- Rhee, Eun, James S. Uleman, and Hoon Koo Lee. 1996. “Variations in collectivism and individualism by ingroup and culture: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1: 1037-1054.
- Rothstein, Hannah R. 2008. “Publication bias as a threat to the validity of meta-analytic results.” *Journal of Experimental Criminology* 4: 61-81.
- Singelis, Theodore M. 1994. “The measurement of independent and interdependent

- self-construal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0: 580-591.
- Singelis, Theodore M., Harry C. Triandis, Dharm P. S. Bhawuk, and Michele J. Gelfand. 1995. “Horizontal and vertical dimensions of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A theoretical and measurement refinement.” *Cross-Cultural Research* 29: 240-275.
- Sinha, Durganand, and Rama Charan Tripathi. 1994. “Individualism in a collectivist culture: A case of coexistence of opposites.” pp. 123-136. in *Handbook of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Theory, Method, and Applications*, edited by U. Kim, H. C. Triandis, C. Kagitcibasi, S. Choi, & G. Yoon. Thousand Oaks, CA: Sage.
- Suh, Eunkook M. 2002. “Culture, identity consistency, and subjective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3: 1378-1391.
- Steel, Piers, and Vasyil Taras. 2010. “Culture as a consequence: A multi-level multivariate meta-analysis of the effects of individual and country characteristics on work-related cultural values.” *Journal of International Management* 16: 211-233.
- Taras, Vas, Riikka Sarala, Paul Muchinsky, Markus Kemmelmeier, Theodore M. Singelis, Andreja Avsec, et al. 2014. “Opposite ends of the same stick? Multi-method test of the dimensionality of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45: 213-245.
- Triandis, Harry C. 1995.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Boulder, CO: Westview.
- Tsai, Jeanne L., Jennifer Y. Louie, Eva E. Chen, and Yukiko Uchida. 2007. “Learning what feelings to desire: Socialization of ideal affect through children's storybook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3: 17-30.
- Twenge, Jean M., Emodish M. Abebe, and W. Keith Campbell. 2010. “Fitting in or standing out: Trends in American parents' choices for children's names, 1880-2007.” *Social Psychological and Personality Science* 1: 19-25.
- Vargas, Jose H., and Markus Kemmelmeier. 2013. “Ethnicity and contemporary American culture: A meta-analytic investigation of horizontal-vertical individualism-collectivism.”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44: 195-222.
- Weber, Max. 1930. *The Protestant Ethic and the Spirit of Capitalism*, 2nd edition. London: Allen and Unwin.
- Yamaguchi, Susumu. 1994. “Collectivism among the Japanese: A perspective from the self.” pp. 175-188. in *Handbook of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Theory, Method, and Applications*, edited by U. Kim, H. C. Triandis, C. Kagitcibasi, S. Choi, & G. Yoon. Thousand Oaks, CA: Sage.

A Meta-Analytic Review of Koreans' Cultural Self-Orientation: Focusing on Collectivism and Individualism

Hyekyung Park

Sungshin Women's University

Sangah Kim

Sogang University

In this paper, we meta-analyzed empirical studies that have examined the cultural self-orientation of Koreans along the dimension of collectivism-individualism. Through this meta-analysis, we investigated whether and to what extent Koreans' cultural self-orientation was collectivistic rather than individualistic. Furthermore, we looked at whether the level of collectivism and individualism in Koreans differed as a function of time of data collection, gender and age of study participants as well as scale reliability and content. A total of 41 studies published in Korean were included in the meta-analysis (N=12,925). The results showed the following: First, the level of collectivism in Koreans was relatively higher than the level of individualism in Koreans, but the difference was small to medium in size. Second, the difference between the level of collectivism and that of individualism became larger with age of study participants. Third, the higher the scale reliability, the smaller the difference between the level of collectivism and that of individualism became. In addition, the effect size for the difference between collectivism and individualism varied as a function of scale content. Fourth, gender of study participants and time of data collection were not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Koreans' cultural self-orientation. Finally, publication bias was not detected.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is meta-analysis were discussed, and directions for future empirical research as well as meta-analysis were suggested.

Keywords: cultural self-orientation, collectivism, individualism, Korean, meta-analysis